κόκκος 2

2019 FEB VOL. 203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02-950-5401 / www.bible.ac.kr

제 64 회 학위수여식 (2 월 19 일) 에서 스룹바벨상을 수상하게 될 이예은 (왼쪽), 이주은 학우가 도서관을 찾았다 (관련기사 4 페이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 억 6 천 6 백만 원 배정

3 년 추정 총액 44+ 억원 추정

“2018 년 6 월 , 하나님께 드린 기도 잊지 말아야”

우리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첫해 분 14 억 6 천 6 백만 원을 배정 받았다 . 대상 기간은 3 년으로 올해부터 2022 년까지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총액은 줄잡아 44 억을 웃도는 금액이다 . 교육부는 매년 사업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2 차년도 부터는 그 성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지원예산은 오는 4 월 대학총장에게 총액 (Block Grant) 으로 교부되며 ,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 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지원금액은 ‘학생 1 인당 교육비 평균액’을 기준경비로 하고 이에 학생수 (규모지수), 당해학교의 교육여건 (재학생충원율 등), 그리고 조정상수를 곱하여 대학별 재정지원액을 산출한다 . 이 같은 산식에서 재학생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 재학생이라도 휴학 중인 학생은 재학생수에서 빠지게 된다 .

이번에 받게 되는 지원사업비 첫 해분 14 억 6 천 6 백만원 , 3 년 추정 총액 44+ 억원 은 우리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원액 중 제일 큰 금액이다 . 2004 년 특성화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9 억을 지원 받았으며 그 후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시작된 2008 년부터 사업이 종료된 2013 년 까지 6 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어 총 46 억 1 천 7 백만 원 (연 평균 약 6 억 6 천만 원) 을 지원 받은바 있다 .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2 월 1 일 아침기도회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편 자율개선대학 시대의 새로운 표어대로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 사람도 흠모 (欽慕) 하는 대학 " 으로 혁신해 나가자고 다짐하였다 .

이 자리에서 강우정 총장은 지난 2018 년 6 월 평가 결과를 앞두고 우리가 드린 기도 "1. 하나님의 은혜로 선정되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 2.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 3. 맡기신 사명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 를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새기자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준 이 지원액을 한 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미니설교 ' 운동선수를 생각하며 ' (고전 10:24–25)

김현광 목사(성서학과)

고린도에는 2 년마다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이스트미안 경기 (Isthmian Games) 가 열렸다 .

이 경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주후 51 년에 개최되었고 고린도전서가 고린도교회에 전해질 무렵인 53 년과 55 년에도 진행됐다 . 육상 경기에 고린도인들은 열광했을 것이다 . 바울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 중 우승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게 한다 . 우승하는 운동선수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고 권면한다 .

그렇다면 이기는 방법은 ? 25 절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면서 자기만족에 빠져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방심하면 상을 얻는 경주자가 되기 어렵다 .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 .

25 절에서 바울은 얻게 될 상의 성격을 통해 운동선수와 성도를 비교한다 . 운동선수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절제한다 .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위해 절제하며 달려갈 이유를 가지고 있다 .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서인은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승리자들이다 .

"엘리베이터 한 대는 우리가 짓겠습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와 성도들 8 천만 원 기탁

▲ 삼일교회 장구경 장로가 후원금을 강우정 총장에게 전하고 있다. 왼쪽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가 우리대학의 승강기 교체공사에 사용해달라며 1 대분에 해당하는 8 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송 목사와 장구경 장로는 "교우들의 귀한 헌금이 성서대학 장애우들의 발걸음을 잘 인도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피어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강우정 총장은 "우리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삼일교회라는 선한 등불을 통해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셨다. 송 목사님과 교우들이 베푸는 이 과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말했다.

이번 후원으로 우리가 추진중이 승강기 2 대 교체 프로젝트에 강력한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결실이다. 삼일교회는 용산구 청파동 지하철 4 호선 숙대입구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광염교회 승강기 교체에 1 천만 원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나르는 승강기 되기를"

중계동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 가 승강기 교체기금에 사용해 달라며 1 천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조현삼 목사는 "장애 학우들의 보행을 돕고 섬기는 것은 신앙인 모두의 사명이고 이웃한 성서대학을 살피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실어 나르는 사랑의 승강기가 되어 복음전도자 양성에 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광염교회는 '감자탕교회' 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국내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되는 각종 자연재해 현장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구호활동과 지원 작업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 정신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이다. 광염교회는 하계동 대진고교 4 거리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2 월 중 계약 모금총액 1 억 6 천 5 백여 만 원

8 일 , 삼일교회서 8 천만 원 전달

장애우들을 위한 2 대의 엘리베이터 (복음관 , 갈멜관) 교체 사업 모금이 2019 년 2 월 8 일 현재 1 억 6 천 5 백만 원 (약정액 2 천 2 백 60 만원 포함) 으로 집계되었다.

삼일교회 (담임 송태근 목사) 는 2 월 8 일 교우들을 대표하여 장구경 장로가 강우정 총장에게 8 천만 원을 전했다. 자리에 함께한 송태근 목사는 "장애우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삼일교회는 부활절 헌금을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쓰는 것이 전통인데 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교우들이 바칠 것을 기대하며 부활절 헌금을 앞당겨 가져왔다" 고 말했다. 강우정 총장은 "아무 대책도 없이 2019 학년도 2 학기 전까지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삼일교회를 통해 이루셨다" 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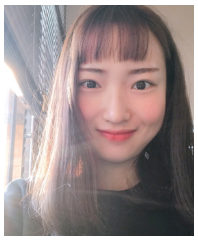
교체공사는 업자선정 및 계약 (1 개월), 기계제작 (2 개월), 현장설치 (2 개월) 까지 약 5 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사 진행의 실무역인 사무관리팀 (담당 고성산 선생) 은 현재 시장조사를 마치고 업자선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입찰 혹은 수의계약을 통해 2 월 중 계약을 마칠 것임을 밝혔다.

국내 엘리베이터 공사는 주요 4 개사 (오티스 , 티센크루프 , 현대 , 삼성) 가 물량 대부분을 점유중인데 현대와 삼성은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티스와 티센이 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공사는 현재의 투명 엘리베이터 골격을 유지하면서 승강차 , 승강로 , 승강장 등을 새로 제작해 설치하게 된다.

스룹바벨상 이주은 , 이예은 (성서 4) 학우

BRC 에서 1 년은 수강생으로 3 년은 섬김이로 충성

▲ 이주은 (성서 4)


▲ 이예은 (성서 4)

성서학과 이주은 , 이예은 학우가 제 3 회 ' 스룹바벨상 ' 수상자로 선정 되었다 . 수상은 2 월 19 일 거행될 64 회 학위수여식에서 진행 된다 . 스룹바벨상은 ' 성서학과 1 학년 BRC 수업 ' 에서 1 학년 때는 수강생으로 , 2–4 학년 3 년 동안은 섬김이로 4 년간 아침 8 시 수업에 참석 , 후배들을 격려하며 성경읽기 수업활동을 도운 봉사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상이다 .

수상자인 이주은 학우는 "4 년간의 BRC 수업을 통해 내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 오늘의 영광은 동료들과 후배 모두의 수고 덕분이었다 . BRC 가 KBU 의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 " 고 말하였다 . 이예은 학우는 "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지난 4 년은 행복했다 . 모두에게 감사하고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값진 시간이다 .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수상자로 선정된 두 학우는 4 년 전인 2015 년 신입생 신분으로 BRC 수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 그 때 선배들이 부어준 사랑과 관심 덕분에 그들의 BRC 수업이 순조로울 수 있었다 . 이 과정을 눈여겨 보게 된 두 학우가 이듬 해부터 섬김이를 자원하고 3 년간을 매일 아침 8 시부터 후배들의 BRC 현장에서 함께 해 왔다 . BRC 가 단 시간에 안착하게 된 배경에는 이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 . 또한 이 수업을 담당한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지탱해 왔다 .

전년도 스룹바벨상 수상자는 김예지 , 김환 , 김윤영 학우가 수상했다 .

**BRC (Bible Reading Class) – 성서학과의 필수과목 . 입학식 날부터 1 년간 학기중 매일 아침 0 교시 (8 시) 에 등교 ,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과목 .*

제 64 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2 월 19 일 , 박사 1 명 , 석사 66 명 학사 207 명

제 64 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오는 2 월 19 일 오후 2 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거행된다 .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학위 1 명 , 석사학위 66 명 (일반대학원 7 명 , 신학대학원 30, 사회복지대학원 10, 보육대학원 19) 과 학사학위 207 명 (성서학 46 명 , 사회복지학 56, 영유아보육학 42, 컴퓨터소프트웨어학 16, 간호학 47) 이 학위를 받는다 .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이소리 원우 (일반대학원) 의 논문 제목은 「사무엘상 8 장 –15 장의 본문 – 언어학적 연구」 이며 이소리 원우는 성서학과 53 회 동문이다 . 대학원은 박선희 (일반대학원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 원우 , 학부에서는 진예은 학우 (사복) 가 영예의 최우수 총장상을 받는다 .

졸업예배 설교는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담임) 가 담당하고 기도는 박선 학교법인 이사 , 축도는 현희철 목사 (중앙성서교회 , 한국성서선교회 이사장) 가 하게 된다 .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대학원

총장상 : 박선희 (일반대학원 ,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원장상 : 김준우 (사복), 여미희 (보육), 홍은희 (신학)
이사장상 : 이지성 (신학)
한국성서선교회 이사장상 : 장선희 (신학)
총동문회장상 : 김명주 (사복), 이지민 (보육), 최성자 (보육)

▲ 학부

총장상 : 진예은 (사복) [전체성적최우수],
유윤상 (성서), 김태영 (영보), 김석래 (컴소), 윤가형 (간호)
이사장상 : 진예은 (사복)
총동문회장상 : 김예은 (사복)
선교회이사장상 : 김창현 (성서)
스룹바벨상 : 이예은 (성서)
에스라상 : 백해송 (성서)

강순숙 씨 발전기금 1 억 원 쾌척

“복음전도자 양육의 일관된 대학”

강순숙씨가 성서대학 발전에 사용해 달라며 1 억원을 학교 계좌로 후원하였다. 후원자 강순숙씨는 " 대다수의 기독교 대학들이 초창기 신앙의 지조가 퇴색해가는 현 상황에 대해 무척 안타까웠었는데 한국성서대학은 달랐다. 개교 이래 복음전도자 양육 의지를 일관해 오며 정체성을 고수해 온 유일한 대학임을 확인하고 후원하게 되었다 " 고 말했다.

이번 후원에는 간호학과 김조자 교수의 노력과 정성이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주변의 지인들에게 성서대가 신앙 정체성을 지켜가는 신실한 대학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지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인을 거쳐 김 교수도 전혀 모르는 강순숙 씨에게 성서대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 강순숙 씨는 관련 내용을 확인 후 바로 그 다음날 아무 설명도 없이 학교 후원 구좌에 1 억 원을 입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강우정 총장은 " 강순숙 씨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통해 도우셨다. 우리 대학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이 큰 후원에 보답하는 길이다 " 라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2019 학년도 학부 장학대상자

260 명 총 3 억 5 천만 원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
문진우 (컴소 2) 학우

2019 학년도 1 학기 장학대상자가 25 일 발표되었다. 장학위원회 사정을 거쳐 교내 성적장학 45 명 , 외부기관 장학 등 전체 260 명에게 총 3 억 5 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예의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에는 4.3 만점을 받은 문진우 (컴소 1) 학우가 영광을 차지했다. 학과별 최우수성적장학으로는 박미혜 (성서 3) 학우 등 15 명이 감격을 누리게 됐으며 허진선 (사복 2) 학우를 비롯한 29 명은 우수성적장학으로 기쁨을 맛보았다. 신입생 성적장학대상자는 등록을 마친 후 성적에 따라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교내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 문진우 (컴소 1)

◆ **최우수성적장학**

△ 성서학과 : 박미혜 (3), 김명은 (2), 곽선희 (1)
△ 사회복지학과 : 강하늘 (3) , 김소영 (2), 조현경 (1)
△ 영유아보육학과 : 장선주 (3), 이다혜 (2), 이혜린 (1)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김혜원 (3), 김모세 (2), 박채연 (1)
△ 간호학과 : 서하영 (3), 김정연 (2), 이진영 (1)

◆ **우수성적장학 (2 등 / 3 등)**

△ 성서학과 : 임빛찬 , 백유경 (3), 이나현 , 안소영 (2), 한수진 , 곽지안 (1)
△ 사회복지학과 : 이인재 , 유지수 (3), 최하은 , 허진선 (2), 지예은 , 손정현 (1)
△ 영유아보육학과 : 임지현 , 김하현 (3), 김소혜 , 이혜원 (2), 송예인 (1)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김인우 , 김지하 (3), 조종운 , 김선웅 (2), 황재민 , 최수빈 (1)
△ 간호학과 : 김민주 , 박찬미 (3), 홍효천 , 김인희 (2), 김희석 , 이영현 (1)

우리대학 취업률 76.8%, 최 상위권

전국 14 위 , 서울시내 대학 중 1 위

성서학과 62.1% 로 수직상승 , 타 학과 부담 덜어

우리대학 취업률이 4 년제 대학 중 최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 전국 단위에서는 14 위 (191 개 대학 , 상위 7%) 이고 수도권 4 위 (70 개 대학 , 상위 5.7%), 서울시내 대학 중에서는 당당히 1 위를 차지하였다 . 대학 평균 취업률은 62.6% 인데 우리는 76.8% 이다 . (* 대학정보공시상의 취업률은 졸업연도보다 1 년 ~13 개월 후에야 확정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된 취업률은 2016 년 8 월 코스모스 졸업자와 2017 년 2 월 졸업자의 취업 통계이다).

지난 3 년 동안의 취업률은 2014 년 68.8%, 2015 년 73.4%, 2016 년 70.2% 로 매년 강세를 보이고 있다 . 학과별로 간호학과 (95.5%) 와 영유아보육학과 (89.7%) 가 여전히 완전취업으로 우리 대학의 취업률을 견인하고 있으며 컴소 73.7%, 사복 66.7%, 성서가 62.1% 를 보이고 있다 .

이번 취업통계에서는 성서학과가 거둔 취업률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 교육부는 성서학과 졸업자를 졸업생 수 (분모) 에서 제외하고 취업률을 계산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단 한 해도 성서학과를 제외한 적이 없다 . 아무리 불리한 경우일지라도 성서학과 혹은 어느 학과라도 떼어 놓고 갈 수 없다는 고집 (NSLB) 때문이다 . '같이 간다' 는 타 학과의 의리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성서학과의 취업률은 지난 4 년 동안 수직 상승을 보이고 있다 . 2014 년 취업률 40% 에서 2015 년 53.1%, 2016 년 57.4% 로 성장하였고 올해는 62.1% 를 달성했다 .

하지만 우리대학 취업률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다 . 그것은 유지취업률이다 . 유지취업률은 취업자가 1 년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인데 흔히 취업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 유지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단기 일자리 등에 취업시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꼼수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

현재 우리대학의 유지취업률은 76% 로 전국 4 년제 대학 평균 80%(수도권 82.8%, 서울 84.2%) 에 못 미치고 있다 . 유지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에게 새 직장에 대한 사명감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반면 취업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은 취업자의 직업 적성 , 흥미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직장으로 안내할 필요가 요구된다 .

박성범 취창업지원센터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 교수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 . 취업율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2019 년 제 1 차 법인 이사회

2019 년도 학교 예산안 177 억 8 천여만 원 확정

박성환 , 장현진 , 이은주 신임교수 임용

2019 학년도 제 1 차 법인 이사회가 17 일 오전 복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교원의 신규 임용 , 전년도 추경과 2019 년 예산 심의 및 규정 등을 논의하였다 .

이사회에서는 성서학과 박성환 , 장현진 교수 , 간호학과 이은주 교수의 신규 임용안에 대해 이를 승인하였다 . 초빙교수로 최정권 (성서학과), 김조자 (간호학과) 교수의 재임용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

이사회는 또 2019 년도 학교 예산안 177 억 8 천여만 원을 확정지었다 . 이밖에도 전년 추경예산 161 억여 원의 집행과 검토 및 질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 대학혁신사업의 진행과정과 규정개정 , 승강기 교체 사업과 수탁기관 결산심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

2019 년 신임교수

박성환 (성서), 장현진 (영보), 이은주 (간호) 교수

▲ 박성환 (성서) 교수

▲ 장현진 (영보) 교수

▲ 이은주 (간호) 교수

2019 학년도 신임교원에 박성환 (성서), 장현진 (영보), 이은주 (간호) 교수가 임용되었다 . 박성환 교수는 건국대 졸업 후 남아공 'University of Stellenbosch' 에서 실천신학전공으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웨스터민스터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를 이어왔다 . "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을 펼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인 양성에 매진하겠다 " 는 포부를 밝혔다 .

장현진 교수는 이화여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유아교수학습상법 전공으로 문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명지전문대에서 조교수로 강의해 왔다 . "KBU 학우들이 기독교적 품성과 인성을 갖춘 영유아교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신념 전달에 헌신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은주 교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를 취득했다 . 국방부 육군병원 내 임상과 주요 행정업무 ,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해 왔다 . " 통합적인 사고를 익혀 임상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전문 간호인을 양성하겠다 " 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확실

1 급 사회복지사 시험은 74% 합격 가시권

▲ 서울 성동공고에서 치러진 간호국시 현장에 합격을 염원하며 자리한 전공 교수와 학과후배들의 모습 (뒷줄 왼쪽 세 번째 , 안현미 학과장 , 이소정 교수 , 임현필 교목)

올해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47 명 전원이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 6 년 연속이다 . 지난 1 월 25 일 시험을 치고 난 직후 학우들이 자체 채점 결과 전원이 합격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 되었다 .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른 후 시험지를 가지고 나가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채점과 교수들의 검증이 용의해 졌다 .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는 오는 2 월 19 일이다 . 간호사 국가고시는 전 과목 총점 60% 이상 ,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

한편 지난 1 월 19 일 시행된 제 17 회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시험에는 졸업예정자 67 명 중 61 명이 응시 (91.04%) 하였는데 가채점 결과 45 명 (74%) 이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1 급 시험은 전년도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높았다는 평이었는데 합격자 발표는 2 월 20 일이다 .

우리대학의 1 급 사회복지사 합격률은 해마다 전국합격률의 2~3 배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최근 3 년간 상황을 보면 2016 년 전국합격률은 47.01% 였는데 우리대학은 81% 가 합격하였고 2017 년에는 전국 22.07% 우리대학 53%, 2018 년에는 전국 33.48% 우리대학 83% 였다 .

이와함께 올해 졸업예정자의 91% 가 응시한 상황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된다 . 학교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모든 학우가 1 급 시험에 100% 응시 , 100%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

간호사 국가고시는 학우 전원이 서울 성동공고에서 시험을 치렀다 . 시험장에는 안현미 학과장 , 이소정 교수 , 임현필 학과 교목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기도로 응원하였고 10 여명의 간호학과 후배들도 격려 프랑카드를 들고 선배들을 성원하였다 .

신임 학회장들의 포부와 계획

2019 년도 각 학회를 이끌어가게 될 신임 학회장들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 본다 .

성서학회장 김채현 _ 'The 학회'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는 겸손한 학회

하나님께 더 낮아지고 십자가를 더 기억하는 모습과 자세로 노력해가는 'The 학회' 입니다 . ' 더 하나님의 더 예배자 ' 를 표방하는 'The 학회 ' 는 교수와 학우 사이에서 존경과 배려심이 함께 녹여지도록 임하겠습니다 . 학과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 ,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추구하는 겸손한 학회가 되고 싶습니다 . 우리의 뜻과 의지에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동역자로 함께 성장해 가는 성서학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The 하나님의 The 예배자 '

사회복지학회장 이인재 _ '하이학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하나로 연결

제 20 대 ' 하이학회 ' 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로 맺어져가는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짧게 전하는 ' 하이 ' 인사처럼 교수와 학우 동문간 관계를 높이고 대여사업과 이벤트 및 소식지 발행으로 견고한 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 학과 공동체간 다리 역할과 학우들에게 맞는 복지의 제공도 기획중인데 관심과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 나무 한 그루는 폭풍우에 취약하나 거대한 숲이 되면 홍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 하이학회 ' 되도록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

영보학회장 이수정 _ '꿈빛학회'

모든 학우의 학교생활이 푸르러지도록

영보학회 ' 꿈빛 ' 입니다 . 하나님의 ' 꿈 ' 과 예수님의 ' 빛 ' 이 되어보자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 단 한 명의 학우라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화합하도록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 작은 불편함이라도 털어놓을 소통의 역할자로서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 항상 학우의 관점에서 의견 수렴과 대안을 모색하여 학교생활 자체가 푸르러지도록 곁에서 도울 것입니다 .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힘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꿈빛학회' 는 고급 종합선물세트가 될 것입니다 !

컴소학회장 안기환 _ '하우'(HOW)

기도로 시작하고 , 감사로 이어지도록

컴소 학회는 ' 하우 '(HOW) 로 ' 하나님 안의 우리들 ' 과 영어 어떻게 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기도로 시작하고 해결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학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인생의 도움이 될 신선한 프로그램 마련과 사제지간이 감사로 이어지도록 가교 역할도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 학과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학회는 학우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해져야 가능하니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 더 나은 걸 향해 노력하는 멋진 학회가 되겠습니다 .

간호학회장 양한아 _ '라온 학회'

주어진 임무를 기쁨과 감사로 수행하겠다는 의지

안녕하세요 ! 간호학회 ' 라온 ' 입니다 . 라온에는 ' 즐거움 ' 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 피하지 못할 거라면 즐겨라 ! 주어진 임무를 기쁨과 감사로 수행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학회 운영은 학우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교수와 학우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 소통의 준비를 항상 갖고 있으니 지치고 힘들 때 저희를 불러주시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찾아갈 것입니다 . 학우들에게 즐거운 학과생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

학회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 우리가 제일 잘 나가 ~~ ! '

'제 1 회 밀알캠프 Plus'

학생 지도자들의 단합과 결의대회

2019 년도 한국성서대학교 학우들을 섬기며 이끌어가게 될 학생 리더들의 단합대회인 '제 1 회 밀알캠프 Plus' 가 28~30 일까지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하나총학, 찬양단, 밀알청소년 및 어린이 캠프, 밀알사회봉사단 학생지도자들이 2 박 3 일 동안 찬양과 기도, 토론, 강의를 들으며 2019 년을 도모하였다.

캠프의 첫날 교목실 임현필 목사는 성공적 리더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개발과 내면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극복해야 할 리더십의 그림자」 책을 인용, 영적 리더의 실패사례를 전했다. 박민수 목사는 'TED in KBU' 에서 "리더는 그룹의 목적을 중심으로 현장 속 다양한 색채가 잘 녹아지도록 조율해가는 절제의 배려가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두 번의 저녁집회를 박민수, 이기훈 목사가 인도하였는데 열정을 다한 찬양과 뜨거운 기도소리가 캠퍼스로 퍼져 나갔다. 이밖에도 'Training for Teamwork' 의 프리토크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그룹 내 반대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해 갈 것인가?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적 리더십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등 여러 문제를 질의 토의하며 리더의 자질과 마음 가짐을 세워 나갔다.

김대진 총학회장은 "리더의 자질과 인간적 성숙함의 최종점은 곧 말씀 중심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였으며, 지도자로서 배려와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수시 예비 신입생 대상 'Free 덤' 학기

한파마저 녹인 예비 성서인들의 열기!

2019 학년도 수시 예비 신입생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 중심의 'Free 덤' 학기가 지난 16 일부터 2 월 1 일까지 열띤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Free 덤' 학기에는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김태규 교수), '성공하는 대학 학습법'(이성아 교수), '실용영어 I ' (Susan Nel 교수) 그리고 '창조적인 대학생활과 코딩'(한진호 교수) 등 4 과목이 개설되었다. 무료 강의였고 과목에 따라 3 학점 ~1 학점의 취득까지도 가능한 호조건이었다. 115 명의 예비 신입생들이 수강하였다.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김태규 교수) 를 수강한 이한별 학우 (간호학과) 는 "인문학적 관점과 철학적 시각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기본적으로는 비판과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였다" 며 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예비 새내기들의 강의를 이끈 김태규 교수는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의외로 높아 부담도 컸지만 큰 보람도 느꼈다" 고 말했다. 교학팀 유미나 팀장은 "'Free 덤' 학기의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알찬 강의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강좌를 수강한 예비 학우들이 교정에서 함께 하였다 (오른쪽 끝 김태규 교수)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111 구좌 후원 약정

학교와 후배 발전을 , 6 년째 이어지는 사랑

▲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들이 강우정 총장에게 학과 발전기금약정을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소정교수 , 안현미 학과장 , 윤가형 대표 , 강우정 총장 , 탁현정 부대표 , 김아영 학우 , 최은희 교수)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학우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약정서 111(1 천 3 백여만 원) 구좌를 1 월 30 일 강우정 총장에게 전하였다 .

간호학과 윤가형 대표는 " 많이 부족하기만 한 저희를 불러줘 전문인의 학습과 성숙한 신앙관을 습득케 해준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 동기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고 저희들은 떠나가지만 이를 통해 학교는 물론 후배들의 학습 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이번 후원에 대해 안현미 학과장은 " 학교를 사랑하는 애정 어린 마음에 감사하다 . 현장에서 성숙한 간호전문인으로 존재감을 발휘해 KBU 명예를 드높여주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간호학과는 제 1 회 졸업생이 배출된 2014 년부터 해마다 이와같은 학교와 후배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 오고 있다 .

신 · 편입생 학부모초청 간담회

2 월 23 일 , 로고스 홀

2019 학년도 신 · 편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오는 2 월 23 일 (토) 오후 3 시 로고스 홀에서 개최된다 .

학부모 초청 간담회는 학부모에게 우리 학교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소개하고 학생 , 학부모 , 대학이 동반자라는 인식을 통해 복음전도자 양육을 효과적으로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행사는 예배와 대학 안내 및 교수진 소개 , 환영 연주 등이 준비되고 있다 . 학부모들은 각 학과별로 교수진과 만남도 있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학과별 비전과 경쟁력 , 주요 학사정보 , 장학관련 내용과 대학생활에 적절한 각종 정보 등이 함께 안내된다 . 김은호 부총장이 간담회 예배의 설교를 맡는다 .

승강기 교체 365 천사 모집 현황(목표금액 1억 8천만원) (2018. 1. 4 ~ 2019. 2. 8)

삼일교회(송태근 목사)	80,000,000	인평교회(최호숙 목사)	500,000
서문교회(이성화 목사,28회)	6,246,000	수정교회(이희영 목사)	500,000
오에스더(설립자 외손녀)	3,354,712	강정원(영보학과 교수)	500,000
녹수교회(김진만 목사)	2,000,000	강수진(62회 동문)	360,000
권일화(신대원, 25회)	2,000,000	도봉성산교회(김형철 목사)	300,000
박선(법인 이사)	1,000,000	SUE HONG CRAWFORD(법인 이사)	300,000
김창원(법인 이사장)	1,000,000	전영호,이지민(대외협력팀)	200,000
김남국(외래교수)	1,000,000	무명	200,000
송인숙(광성드림학교 교감)	1,000,000	왕보현(중랑구의원, 45회)	100,000
조윤경(영보학과 교수)	1,000,000	하석실(이모어린이집 원장, 보육대학원7회)	100,000
정휘진(법인 국장)	1,000,000	강보경(다빛축산)	100,000
원영희(사복학과 교수)	1,000,000	무명(성서학과 졸업 예정)	30,000
유정선(성서학과 교수)	1,000,000		
서수경(신대원 9회)	1,000,000	합 계(약정금액 포함)	105,790,712

총장컬럼
총장 강우정

젠더 메인스르리밍 (Gender Mainstreaming)

숭실대는 2015 년 이 학교 성소수자 모임 회원들이 동성애자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의 자서전적 동성결혼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이페어 웨딩'을 교내에서 상영하겠다며 강의실 대관을 신청했는데 학교 측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활동'이라며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월 7 일 대학의 자율성,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향후 시설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동대가 이미 같은 권고를 받았고 장신대, 총신대 등도 성소수자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나라 신학대학들은 큰 영적 전쟁의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 한 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엡 6:12). 요즈음 말로라면 세상의 이성, 이념, 합리적인 생각, 이에 따른 제도, 이들이 장악한 권력조직 등 한마디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젠더 메인스르리밍(Gender Mainstreaming, 성 주류화)이라는 말이 이 싸움의 양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 주류화는 "모든 입법과정과 정책수립과 실행, 결과의 측면에서 '성'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한 관점을 갖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은 생물학적인 성(sex)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성(gender)을 말합니다. GM 은 성의 의미를 바꾸고, 차별 없음, 평등이라는 개념의 frame 을 덧입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능멸하는 흐름입니다.

이 싸움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순교(殉教) 같은 장렬한 죽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지요. 성경은 고맙게도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려주고 곧 이어 이기는 법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3)'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개교 이래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동대, 숭실대 같은 사태가 우리 대학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워 나가자고 외치는 바입니다.

직원 컬럼
김은실 직원(평생교육원)

후회 끝 행복 시작

2019 년 30 대가 되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의 삶은 두 가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를 추구하는 재테크와 결혼적령기로서 이성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며 살아 온 것 같다.

재테크 분야는 어려워서 잘 몰랐지만 직접 찾아보고 전화 및 온라인 상담과 비교분석까지 해가며 가입과 해지 등을 반복적으로 지속해 왔었다. 새해를 맞고서 첫 문자에 어느 계좌가 '만기'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다. 다른 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남았을까?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았지만 만기가 된 적금은 달랑 그것 하나였다. 허무했다. '내가 작년에 뭘 했지...?' 지난 해를 되돌아보았지만 선뜻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성과의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소개팅을 일주일에 5 번 나간적도 있었다. 모두 무위에 그쳤거나 단절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 대 마지막 해를 보내고 되돌아보니 의미 없는 것들만 생각났다. 그동안 물질적인 것에 너무 치중해 살아왔다는 게 느껴졌다. 후회가 밀려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바로 신앙이었다. 재테크 분석한다고 보낸 시간이 아까웠다. 그 시간에 말씀 한 문장이라도 읽고서 QT 할 것을. 이성과의 만남에서도 먼저 기도하고 만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기도로 만났었다면 비록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음 만남을 놓고 기도해 왔다면 지금까지 은혜롭게 지내왔을 텐데 후회가 된다.

나의 20 대는 후회의 연속이었고 30 대도 마찬가지 삶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30 대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반드시 하루에 한번 이상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감해 갈 것이다. 그래서 나의 30 대를 주님과 동행해가는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교수컬럼
안정선 교수 (사회복지학과)

파괴적 혁신은 어디에서부터~

얼마 전 소규모 종교계 대학 혁신세미나를 통해 7 개의 우수사례를 접했다. 우수사례가 교수법, 소통, 교육의 질 인증, 위험관리, 비교과 통합, 성과관리 등 저마다 우수성과 혁신의 방법을 외치고 있었다. 위 사례들은 이제까지 여러 번 듣고 분석했던 자료여서 크게 담아지지는 않았다.

집에 들어와서도 맴도는 단어가 '파괴적 혁신'이었다.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왜 위대한 기업들조차 실패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버드대 클레이턴 교수가 내놓은 용어이다. 결론은 파괴적 기술의 개발 없이 기존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존속적 혁신이나 생산과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율적 혁신에만 목을 매면 위대한 기업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줄어든 인력으로 생산성을 짜낸다면 번뜩이는 파괴적 혁신이란 있을 수 없다. '단순하고 열등한 제품이라도 고객이 하고 싶지만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혁신을 고민하며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 혁신을 시작해야 하고 무늬만, 이름만 혁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현재의 나는 혁신의 주체자요, 매개체가 될 수 있는가?', '나와 우리 조직은 존속적, 효율적 혁신에서 벗어나 파괴적 혁신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나는 학생 욕구중심 맞춤형, 범용화보다는 차별화로 정리했다. 나에게 파괴적 혁신의 출발은 대학 생존, 평가점수, 합의되지 않은 대의명분, 교수자로서의 자존심 보다는 학생을 보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모습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꿈꾸는지, 욕구, 그들의 꿈과 소망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여부다.

OECD DeSeCo 프로젝트 생애 핵심역량은 결국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와 맥락이 같다. 역량강화는 기본 심리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는 파괴적 혁신을 이뤄낼 조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략임에 분명하다.

나의 파괴적 혁신은 학생을 바라보며 그들의 현재와 꿈에서 출발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해 보련다.

외래교수 컬럼
허윤민 교수 (영화 속 그림읽기)

포근한 겨울의 중간에 서서

겨울 날씨가 포근하다. 봄이 왔나 착각하지만 아직도 긴 겨울의 중간에 서있다. 학교도 성장을 멈춘 나무같이 조용하다. 언뜻 죽음의 시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의 나무들이 새싹과 꽃을 품듯 학교는 신입생 모집으로 분주하다. 반대로 품고 가르쳐온 학우를 세상 밖으로 떠나보내야 할 시기이다.

새내기 학생들은 겨울동안 인내의 긴 시간을 거친다. 선택지가 많던 적건 간에 결정의 시기임이 분명하며 결과에 따라 책임도 홀로 감수해야 한다. 어쩌면 최초의 자기 결정일 수 있다. 수험생을 둔 집안은 이 기간에 가까운 지인과 친인척을 제외하고 모두와 연락이 단절된다. 내적으로 내적으로 숨어들어가 성찰의 과정 속에 봄을 기다린다. 미래를 고민하고 계획하며 다짐하는 변곡점의 시기가 이 겨울인 셈이다.

머지않아 학교는 새내기들의 활기찬 모습으로 풍성해진다. 여러 해 동안 아롱다롱한 모습의 신입생들이 성서인으로 다듬어져가는 모습을 봐 왔다. 현재는 미숙하나 4 년 후 값진 결과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장에는 과거의 안 좋은 습관을 바꾸고 건전한 의식의 기반위에 많은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모든 조건을 잘 갖추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림 그리는 과정도 비슷하다. 나도 모르게 작품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망쳤다고 버려둔 작품이 몇 년 후에 완성되어 색다른 기쁨을 안겨주기도 한다.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만 작은 과정 과정이 쌓여 깊이가 된다. 남과 동일한 그림은 작품으로써의 가치 자체가 없다. 오직 자기만의 생각과 방식의 창의적 마인드가 더해질 때 값진 결과물을 접할 수 있다.

봄이 가깝다. 곧 맞게 될 성서의 새싹들이 궁금하다. 각자에게 4 년의 인생 설계가 주어졌다. 남의 그림을 흉내내는 건 정답이 아니다. 자신만의 형과 색으로 캔버스를 채워가는 의지의 성서인 모두가 되어주길 희망해 본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분 아세요?" 하며 송 **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기억이 없네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 교적부에도 없는 분이 인터넷으로 오백만원을 헌금하셨어요." "언제요?" "금요일 오후입니다. 아마 목사님 방송을 듣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말을 듣고 매주 주보에 실리는 계좌 번호가 생각났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백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을 학교 대외협력팀에서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교체를 모금중인데 삼일교회와 송태근 목사님이 오천만원을 헌금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관과 갈멜관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돼 자주 멈춘다고 하는데 삼일교회가 큰 손이 되어 준 것입니다.

이런 감사함과 함께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롬 12:13 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 하기를 힘쓰라" 고 권했는데 이 명령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면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강자와 약자가 존재했을 것이고 부유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여유가 있는 신자들에게 나그네의 쓸 것과 약한 성도를 섬길 것을 권면했을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청지기의 지혜를 말하면서 당시 교회를 돌아다니는 직업적인 전도자들의 폐해를 거론, 성도들의 쓸 것과 나그네 대접에 교회의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유럽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참여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려고 온 교인들의 모습과 헌신을 보면서 큰 교회의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이유 있는 비난도 받지만 크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년에 저희도 학교와 함께 동남아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과 물질로 가르침과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이 성서대학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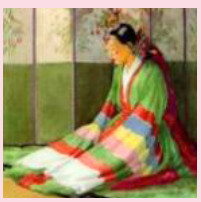
한 해를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해에도 변함없이 더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55

新婦 _ 서정주

新婦는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新郎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新郎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돌쩌귀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新郎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新婦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다리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다. 문돌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나서 四十年인가 五十年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딴 볼일이 생겨 이 新婦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新婦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新婦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 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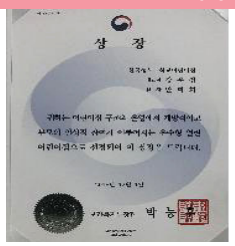


딱 한 번만이라도 뒤돌아보았더라면……

자신의 생각에 갇힌 한순간의 오해가 한 여인의 40년 50년 인생을 매운재로 폭삭 내려앉게 하였다. 이러한 쓰고 긴 아픔의 시간을 사람들은 민요 〈아리랑〉, 고려속요의 〈가시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 서정주의 〈신부〉로 맥을 이어주며 한(恨)의 미학이라 일컬었다. 기다림과 참음은 언제나 여인들의 몫, 어찌 그 지난(至難)한 여인들의 한을 미학으로 거두절미(去頭截尾) 할 수 있는가. 어찌 그 억울함을, 어찌 그 견뎌냄을, 어찌 그 한스러움을…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더 이상 여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대학어린이집



▲ 2018 년 보건복지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선정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선정

대학어린이집이 2018 년 보건복지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2 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 과정에 '행복한 밥상'의 편식 예방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영유아 식생활 관련 설문 조사로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를 파악하고 가정에서는 적절한 조리법을 연구해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음식 사진과 조리 방법을 복도에 게재시켰고 다른 학부모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음식은 식단에 반영했다. 조리법이 선정된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와 배식까지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와 친구가 먹는 음식을 만들고 조리실 환경과 식단까지 확인하니 더 안심된다고 말하였다. [**밀알반 박미애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어르신들의 치매 검사에 필요한 기억력을 테스트 중에 있다.

어르신 치매검진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1 일 ~ 25 일까지 일주일간 경로식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하였다. 노원구 치매검진센터 지원으로 1:1 매칭을 통해 1 차 기초 기억력과 2 차 심층 기억력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이를 종합하고 의사진료와 병원진료 의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검사의 목적은 치매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 조치로 진행을 늦춰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좀 더 영위되도록 지원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진료에 앞서서 사전에 치매검사를 받았거나 치매로 확진 받은 이용자는 제외 되었다.

고위험 군으로 분류된 어르신들은 모니터링 및 관련 프로그램 (나의 행복한 기억 찾기) 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서비스팀 문유나 대리**]

꿈빛어린이집

▲ 상상나라에서 도구를 이용한 오감발달 체험 놀이를 펼치고 있다.

'상상나라' 현장학습

지난 17 일 만 4-5 세 유아들은 어린이 대공원 '상상나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현장학습은 1 월 주제 '생활도구'와 연계된 다양한 놀이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 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탐색해 적용하는 공간 놀이와, 자신이 꼬마 건축가로 집을 지어보는 문화놀이, 생각의 나래를 펼치게 해 줄 독서놀이가 관심을 받았다. 친구와 협력해 놀이를 이어가는 신체 놀이 등 오감에서 느끼고 상상해보는 다양한 체험도 접하였다. 특히 과학 놀이와 우주를 탐험케 해 줄 상상놀이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기계의 사용에 신기해하며 열중하는 모습에서 현장학습 효과를 각인시키는 시간이 됐다.

[**민들레반 교사 김태연**]

성서대학교회

▲ 유초등부 어린이용 가정예배서

'오직 말씀'

성서대학교회는 2019 년에도 맥체인 (M'Cheyne) 성경읽기표에 따라 성경읽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모든 교인이 말씀 읽는 습관을 익혀서 공동체가 성서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 온 가족 말씀 읽기와 올바른 신앙교육으로 행복 넘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뜻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한 가족 예배로 주보에 기록된 예배서는 청장년과 중고등부가 있는 가정에서 활용하면 된다. 유아부와 초등부는 각 부서별로 제작된 예배서를 통해 부모와 함께 갖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싹장학헌금으로 학교의 복음전도자 양성에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협력해 갈 예정이다. 성서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 비전과 준비된 계획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임하길 기원한다. [**서욱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원마운드 스노우파크에서 눈썰매타기를 즐기고 있다.

겨울에도 신나게 놀이를

지난 11 일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푸른반 친구들은 일산에 소재한 원마운드 스노우 파크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현장에 도착한 유아들은 눈이 내리는 얼음 위에서 다양한 모양의 썰매로 구성된 튜브 눈썰매 타기, 얼음 속 동전찾기를 즐겼다. 또한 스키썰매를 타고 눈의 나라 여행하기 등 겨울 놀이와 체험을 접하며 활발한 신체활동을 즐겼다.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썰매를 끌어주고 얼음판에서 미끄러진 친구에게 "괜찮아?" 하고 일으켜 주는 등 또래 간에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혼자서 눈썰매타기에 도전한 친구에게 "잘한다!" 라는 환호성과 "멋지다!" 라고 격려하는 등 친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줘 교사들을 감동시켜줬다. 앨범을 본 학부모들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푸른반 이은경 교사**]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 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고 있다.

부모 • 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18 년 한 해 동안 부모 · 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영유아와 부모 4,300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퍼포먼스 미술, 베이비 싸인, 아이와 나무, 오감발달, 영아체육, 엄마와 함께하는 발레, 요리 특강, 아이조아 놀이교실 등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했다. 해당 과목마다 우수한 전문 강사를 배치시켜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애착형성과 친밀감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는데 만족도와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겨울 정규 강좌 프로그램은 2 월 27 일까지 진행 중이며 3 월 봄 정규강좌에는 오감, 음률, 요리, 미술 등 부모 · 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미선 보육전문요원**]

상계5동어린이집

▲ 학부모들이 인체모형을 이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 부모안전교육」

지난 17 일 삼성 EFR 교육센터강사를 초빙해 학부모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졌다. 하임리히는 송편이나 떡 등이 목에 걸렸을 때 등뒤에서 두 손으로 복부를 당겨 내용물을 밀어내는 응급처치법이다. 실제 모형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한 명씩 직접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 법을 실습할 수 있어 유의미한 교육이 되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형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위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귀한 교육이 되었다.' 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실생활에서 쓰일 안전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예쁜꽃잎반 김은아 교사**]

늘사랑어린이집

▲ 졸업반 아이들이 양평외갓집 체험마을에서 겨울여행의 멋진 추억을 담았다.

졸업반 마지막 수업

졸업을 앞둔 5 살 친구들이 지난 11 일 '양평 외갓집 체험마을' 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미세먼지와 한파가 조금 염려됐지만 순조로웠다. 체험마을에서는 먼저 얼음썰매와 눈썰매를 경험하였고 별미인 군고구마로 겨울 미각도 맛보았다.

자동차와 다른 형태의 트랙터에 몸을 싣고서 구경하며 환호성을 크게 질렀다. 트랙터가 움직이자 "우와 간다 간다!" 하며 기쁨을 나타냈고, 하늘 높이 떠다니는 연날리기 체험으로 재미와 감동까지 듬뿍 안겼다.

아이들은 서로를 챙기고 아껴주며 신나는 감동과 소중한 추억을 기억케 한 여행이었다. 참여한 학부모들도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어 감사하고 늘사랑어린이집과의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행복한반 김한솔 교사**]

충무어린이집

▲ 열린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가 아이들의 블록놀이를 도와주고 있다.

열린 어린이집 행사

충무어린이집은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에 학부모 대상으로 열린 어린이집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첫 열린 어린이집이 지난 16 일 열렸으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자유선택활동과 급식지도를 도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 성취욕과 웃음, 재미로 심신발달학습에 큰 도움을 줬다. 블록 놀이에서도 창의적 두뇌발달과 건전한 경쟁심을 유발하였으며, 급식지도를 통해 화목한 밥상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신체활동과 블록놀이에 임하는 게 보기 좋았고 점심시간도 즐거움이 가득했다. 어린이집 전체가 무척 밝아진 걸 아이들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접했다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강예은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강순숙	1억원(운영)	조윤경(영유아보육학)	140만원(운영)
강덕희(택사스대학 교수)	2,018만원(운영)	김창원(이사장)	120만원(운영)
국민은행 상계동지점(남궁현 지점장)	2,000만원(운영)	박선(이사)	12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547만원(운영)	정휘진(법인사무국)	112만원(운영)
강우정.강진(총장)	1,526만원(운영)	김현광(신학부 교수)	110만원(운영)
중앙성서교회(현희철 목사)	282만원(운영)	송인숙(중앙성서교회)	110만원(운영)
도서출판 공동체	259만원(현물)	동서환경(주)(김태봉 대표)	100만원(건축)
권일화(신학대학원 25회)	200만원(운영)	손순아(평생교육원)	100만원(운영)
녹수교회(김진만 목사)	200만원(운영)	영주교회(이상협 목사)	100만원(운영)
안희원(늘기쁜치과의원 원장)	200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강나경 강주옥 김선식 김은천 김종숙 백은진 손진규 유양숙 유지영 이두현 이상준 이혜윤 임남연 조경애 조태환 탁국현 황승호
2구좌 김승용 김중재
3구좌 강수진 장영훈 정재연
5구좌 조유진
10구좌 김종우 서수경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장원경
3구좌 김은영
4구좌 김덕원
10구좌 고미숙

재학생 및 가족
2구좌 안혜경 최혜진
3구좌 김윤정 박재완

부설기관
1구좌 김은지 박제하 윤보배
2구좌 오윤아 홍옥주
3구좌 김미화 박선경 위소진 유정현 이선정 임지혜 장수진 최은혜 한민희
5구좌 강진아 이지연
10구좌 정나나 조지선
15구좌 김화영 오동준

성서대학교회
1구좌 강경혜 이대영
2구좌 변경선

중앙성서교회
1구좌 최영란
2구좌 이수병
3구좌 김덕규
5구좌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0구좌 현희철

일반
1구좌 박미숙 소아름 윤주원 이성희 이호정 조준성 조준우
5구좌 석지현

단체 및 기관
1구좌 김포예수사랑교회
2구좌 성복중앙교회
3구좌 강남임마누엘교회
5구좌 수색감리교회 천성교회 행전교회
10구좌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 구리중앙교회 대광교회 서부중앙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민이삭 박진기 이아람 정다운 무 명
1만원 강나경 강명희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영규 강영주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정애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본철 구세경 권명순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경혜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미숙 김민겸 김민정 김민정 김민호 김민음 김병렬 김보민 김보희 김선근 김선식 김선태 김성균 김세현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희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종환 김지선 김진영 김진하 김차욱 김춘덕 김태용 김필녀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선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영주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상수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반해빈 반해성 배민정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향목 변지윤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초롱 서 현 서희영 설경수 성순애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송명훈 송순덕 송영자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신호영 신화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병휘 오은희 오인록 오찬미 오채엽 우승연 유미정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정례 유지영 유지혜 윤솔이 윤영원 윤예서 윤지준 윤혜자 이경선 이광석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정 이수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실 이은실 이은영 이은지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춘석 이학준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희윤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전명자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옥순 정은숙 정은영 정인철 정지현 정진영 조경애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장현 조태환 주민자 주영덕 지영환 진병원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민영 최서희 최선경 최수연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종운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아름 한원창 한정은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홍진기 황선명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2만원 고난홍 곽연희 구연민 국소영 권오경 김경희 김기옥 김명희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샛별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연정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지은 김지혜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성준 박재송 박지영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신정섭 신정화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이경희 이구영 이상복 이선영 이선재 이영애 이예람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임은희 장민호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주영 정지용 조성진 주성현 진태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한민수 황승호 황보혜영
3만원 공복순 권삼희 권서영 권오규 김동교 김동원 김보라 김세련 김수진 김아란 김종숙 나예원 남세영 남지원 문순일 문지수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민송 방애자 서명주 설보경 송성은 신은숙 양광석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유예진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예은 이예지 이재국 이주연 이혜민 임유미 장영훈 전병민 전영이 전지혜 정선희 정슬기 정윤주 정재연 조신애 주혜원 진성지 최광희 최소린 한보미 홍석화 황영숙 황예린

기부자 명단

4만원 박주은 신은진 이윤정 정성종
5만원 강동란 경민정 김세영 김종남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지혜 배성준 송복순 안선례 양원석 이지은 임연식 전은진 조연정 조유진 천유림 하승훈 허성희 허정원 홍현숙
6만원 서성숙 정동주
7만원 김성경
8만원 배정환
10만원 강경옥 김장교 김종우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왕보현 이부호 장명헌 조병수 최대만
11만원 유선미
15만원 송현미
17만원 김경화
22만원 반세호
50만원 신유선 신호정
100만원 이례장학
200만원 권일화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애솔 강정희 권순길 김명선 김민아 김석정 김윤옥 김은이 문성남 박기영 박대종 박미영 박재숙 방지연 백해송 서이현 송기운 신연정 신영옥 안소연 염인형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동기 이혜진 임동화 정창금 최상모 홍경희
2만원 공진희 김복녀 김예지 김현숙 박혜숙 서성식 안혜경 엄미자 오옥경 이영림 최혜진 허 윤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재완 배정숙 서재형 이종권 조대의 채형찬
5만원 김형태 이지은 이한빈 정미영 허용철
10만원 이상학
100만원 손순아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고아라 권관희 김미영 김봉재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이경희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보미 조형섭 요시다고조
2만원 고진주 권경애 김남준 김동준 김세원 김장호 문행자 박준기 박태용 손정수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3만원 박재진 방진희 임경미 추연진 한요게벳
5만원 김덕현 김성호 김영직 박인혁 박현희 안미란 장정순 전영천
6만원 이성아
7만원 김 희 이정은
8만원 강신애 고성산 김은실 문지예 민경은 이기훈 정은상 조아라 하희수
9만원 권경만 이상일 임현필 정영은 진달래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승호 김웅기 김은영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욱 김형미 박민수 안현미 오윤선 오은주 원영희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이소정 장인순 정순례 정순애 조현진 조혜경 진경선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11만원 김덕원 김병수 이복남
100달러 강일로
12만원 권순범 신재윤
13만원 강규성 김정숙 이호섭 한진호
14만원 박성범
15만원 김량헌 김희수 최사랑
17만원 김현동 신금주 신지수 유미나
18만원 양희정 임환석
19만원 김인화
20만원 곽규상 김성경 박태수 안정선 이은광 임지영 정해덕 최육열
200달러 오영돈.강혜정
23만원 최지은
24만원 이광삼
25만원 최선희
28만원 전영호
29만원 이강동
30만원 유정선
38만원 김중완
70만원 김은호 최영태
110만원 김현광 정휘진
120만원 김창원 박 선
140만원 조윤경
1500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권은지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태연 문유나 박제하 서애진 오윤아 윤보배 임재택 최미정 최선영 허성보
2만원 김은비 박지은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주은 김현애 김혜진 박미애 박선경 박천순 변송이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양미현 위소진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이효빈 임미숙 임보나 임지혜 장수진 장지영 정난경 정미옥 정혜란 조은채 최은혜 최하나 탁지혜 한민희
5만원 강진아 박연희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전은재
6만원 권정아 장나혜
8만원 박미선
10만원 이인경 정나나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차 건
20만원 김승옥
25만원 신영자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배 윤.김현진
3만원 이은지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1만원 이광열 이반석 장옥경
2만원 장선규
3만원 이훈호 장석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10만원 삼일성서교회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성서대학교회

5천원 김온순 박선구 박혜영 유은주 최진두
1만원 강경혜 강선영 권정화 김나미 김다혜 김배열 김병철 김봉춘 김사천 김상은 김성철 김신덕 김애숙 김영희 김윤선 김을열 김정숙 김주혜 김지우 김지윤 김태연 김현미 김혜련 김희자 남윤주 남지영 무 명 박명자 박용숙 박인숙 박정하 박주형 박천순 박태수 배은미 백순옥 성윤선 손진희 송인희 신양금 심애경 안숙진 양순정 오경원 오윤아 용정자 유상호 이가은 이길우 이대영 이대우 이대한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이정임 이정철 이종옥 이주현 이지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임현필 전하준 전해성 정갑순 정나영 정선희 조건희 조영희 조용수 조지선 조현진 최명순 최영태 홍기순 홍동숙 황서린
2만원 강규성 권정숙 김덕현 김민자 김인영 김향순 박은유 변경선 신인옥 신재은 안영숙 양천식 양태환 윤복순 이승림 장병호 정명수 조병하 조성민 조정선 조준희 최순남
2만5천원 김동선 신선미
3만원 김영헌 김원태 김봉춘 김현석 무 명 이은실 장홍림 한진호
4만원 강유진 박선하 오경모
4만5천원 이명순
5만원 길용희 박세건 유형창 조혜경
5만5천원 김웅기
6만원 이숙영 이윤봉
9만원 권태완
154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기병문 김미영 김상오 김일섭 홍성호
2만원 이승종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재혁 김정희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춘자
3만원 김덕규
5만원 김종구 한금례 바울선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권사회
10만원 이혜선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10만원 무 명
280만원 중앙성서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숙자 유재란 차형미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5만원 김광석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원 구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한옥경 홍성일
2만원 김양례
3만원 문경녀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배숙 김범설 김범준 김석균 김승애 김양권 김영주 김유벽 김유진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안애숙 오경희 오미라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이관헌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장명웅 장지화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조준성 조준우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원실 최은실 최인숙 최점숙 하경국 한민희 한상은 허창금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서병준 이일신 장병길 정주아 정형채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김에스더
3만원 김미수 장문석 장순옥
4만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20만원 무 명
30만원 박순정 SUE HONG CRAWFORD
34만원 이문자
90만원 한희경
200만원 안희원
2천만원 강덕희
1억원 강순숙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드/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트코리아/금곡광염교회/동신자원/문양교회/성복중앙교회/열방교회/예수꿈사랑교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새샘교회/섬기는교회/신작교회/우리교회/의정부좋은나무교회/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4만원 주님의교회
5만원 권선제일교회/다드림교회/삼일교회/수색감리교회/일동성서교회/천성교회/충은교회/하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아이앤유니/(주)이레E&C이레디자인/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두암산업(주)/상록교회/생명샘교회(성주)/오감발달연구소/퇴계원제일교회
20만원 (주)소원기건/만나교회/서부중앙교회
24만원 교수부
30만원 염창중앙교회/한민제일교회
50만원 예랑회/도봉성산교회
60만원 노아인터내셔날
100만원 영주교회/동서환경(주)
200만원 녹수교회
260만원 도서출판 공동체
2000만원 국민은행 상계동지점

소계(20181221~20180120) 235,087,329
누계(20180301~20190120) 945,307,686